

기본급 99,000원 인상! 산업전환협약 쟁취!
노동자생존권 보장!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 쟁취!



2021.04.23(금)

지부교섭 속보

1호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일방적 구조조정 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

2021년 투쟁 시작!

모두가 함께 사는 방법 찾자!

지부와 지역사용자협의회는 4/22(목) 15시 한운 교육문화관에서 2021년 지부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김정태 지부장은 “올해 지부교섭 사업장이 1곳 늘었다. 동원로엑스의 지부교섭 참가에 기대가 크다.”며 환영인사를 전했다. 지부장은 또 “올해 교섭은 모두가 함께 살 방법을 찾는 교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견례는 교섭원칙을 합의하고 마무리됐다.

지부는 이 날 13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투쟁을 선포했다. 지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핑계로 자행되는 구조조정을 금지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 극복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부터!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계속해서 더 힘들어지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희망퇴직, 임금동결, 복지축소 등 일상적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한다.

올해 지부교섭은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 교섭 조차 할 수 없는 복수노조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목표로 투쟁한다.

코로나위기를 빌미로 엉망이 된 노동자의 삶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코로나 극복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교섭원칙>

1. 교섭장소 : 각 사업장 순회. 1회 순회 후 한운에서 계속 개최.
(한운→보쉬→대한이연→JCC→코스모링크→KDK→동원로엑스)
2. 교섭 개최 : 매주 목요일 14시 30분
3. 교섭 위원 : 각 사별 임원급을 포함한 2인 이상
4. 교섭 운영 원칙
 - 교섭성원 : 7인 이상 참석 (각 사별 1명 이상)
 - 간사 : 노 (정성훈 사무국장), 사 (JCC 배환석 팀장)
 - 사회 : 노사 윤번제로 진행
 - 서기 : 노 (임성우 교섭부장), 사 (JCC 이진영 대리)

1차 교섭 (상견례) 속기록

모두가 함께 사는 방안 마련하는 교섭 돼야

노 : 2020년 지부교섭이 아직도 마무리 안됐다. 한 개 사업장이 합의 못하고 있는데 5월까지 지는 마무리하자.

올해 1개 사업장이 늘어서 7개 사업장이 지부교섭에 참여한다. 많은 사용자들이 지부교섭 참가에 대해 오해하는데, 지부교섭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기대도 하고 있다. 기존 6개 회사가 동원로엑스에 조언해주길 부탁한다.

올해도 지부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금속노조 임원 임기가 올해까지다. 11~12월이면 임원 선거기간이다. 올해는 여름휴가 전에 끝냈으면 한다. 그러려면 사측에서 더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부 요구안은 간단하다. 코로나 정국에 맞는 요구안, 금속노조 통일 요구안, 임금요구안 정도이다. 어느 사용자 대표가 “산업재편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더라. 외투 기업은 국내 철수까지 고민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다. 모두 함께 사는 방법을 만드는 게 올해 교섭의 주요한 의제다. 산업재편 관련 요구안도 그런 의미에서 요구했다. 노사가 함께 살 방법을 모색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지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모두가 함께 사는 방안을 위해 구제방안을 노사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자는 것이다. 노사가 함께 코로나 극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사 : 작년 지부교섭이 끝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상견례다. 작년은 노사가 모두 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올해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나아진 게 없는 상황이다. 백신이 개발됐다지만 접종율이 높지 않다. 올해도 조심해야될 상황인 것 같다.

올해 지부교섭 사업장이 새로 추가됐다. 작년에 비해 사측 교섭위원도 절반 정도 바뀌었다. 잘 부탁한다. 조합요구안이 간단하다고 했는데 검토해보니 쉽지 않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노사가 교섭에 임하면 휴가 전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노사 각자 노력해서 조속히 끝나길 바란다.

사회 : 교섭원칙 논의하겠다. 사전에 조율된 내용 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 확인하겠다.

노 : 교섭시간을 15시에서 14시로 변경하는 게 어떨까 한다.

사 : 점심식사 후 이동시간 고려하고, 사전회의도 해야하니 14시 30분은 어떤가?

노 : 그렇게 하자.

사회 : 사전 동의된 교섭원칙 중에서 교섭시간만 14시 30분으로 변경하겠다. 차기 교섭은 4/29(목) 14시 30분 보쉬에서 하겠다.